

# 성폭력·마약에 횡령까지... 양진호 형량 10년 넘을 듯

(한국미래기술 회장)

(최대)

위디스크 자금 2.8억 개인사용 재판서 혐의들 '유죄 인정' 되도 형량합산 안돼... 최대서 0.5배 가중



지난 7일 오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 넘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 수사팀은 10일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000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종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지난달 공개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혐의는 폭행이다. 형법은 사람을 폭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3년도 안되는 폭행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징역 2개월~10개월에 해당한다. 반면 보복목적 폭행은 징역 10개월~2년으로 경중 뉘다. 형이 가중될 경우 징역 1년~2년 6개월에 처한다. 양 회장은 7일 동영상 속 자신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동영상 속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 당한 전직 위디스크 직원은 당시 양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위디스크 게시판에 작성한 뒤 사무실로 불려갔다.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위디스크 사무실로 불러내 집단 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양 회장이 인정한 또 다른 동영상에는 그가 2016년 가을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검과 활로 닭을 잡도록 강요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가 없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양 회장이 성범죄 동영상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웹하드 카르텔'이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도 음란한 영상의 배포·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도 마찬가지다.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진다. 일본 성인용 동영상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상태다.

### ◆최대형량은 업무상 횡령 '10년'

경찰은 양 회장을 웹하드 내 성범죄 영상 유통에 대한 중범죄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중범죄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해, 정범보다 형량이 줄어든다. 반면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똑같이 처벌한다.

경찰이 최근 양 회장에게 추가 적용한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향후 재판에서 관련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형량 전부가 합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량에 0.5배를 더하는 '경합범에 대한 법정형의 가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죄가 여럿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따르는 장기형의 1/2까지 가중된다. /이법종 기자 jokr@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 우분 '페이든든+통장' 오늘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나 바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포스트페이(Postpay)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우체국 페이든든+통장'을 12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용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시 최고 연 1.0%다. 우대금리는 포스트페이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0.5%포인트, 개인인 경우 적금 가입 또는 자동이체 시 0.2%포인트, 사업자인 경우 소상공인 정기에금 가입시 0.2%포인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0.2%포인트가 주어진다.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두 달 동안 새로 가입한 고객을 추천해 백화점상품권, 우체국쇼핑상품권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간편결제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고금리 예금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고용보험 가입자 3.3% 증가... 33개월 만에 최대폭

(전년대비)

노동부, 10월 노동시장 동향 작년비 서비스업 40.3만명 늘어 실업급여 6019억 지급, 60% 급증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본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35만 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3만1000명(3.3%)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2016년 1월의 44만명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별 증가폭은 올해 들어 계속 커지는 추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고용의 질적 개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의 양적 증감은 14일 통계청이 발표할 10월 고용동향에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40만3000

명 증가했다.

음식·주점업(5만3000명)과 숙박업(5000명)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온 제조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1만1000명 늘어 2016년 7월의 1만6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타 운송장비업은 지난달에도 1만1000명 줄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감소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업황 악화 등으로 올해 들어 계속 감소 중인 자동차업 피보험자도 1만명 줄었다. 건물 청소·경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도 1만5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내년 中어선 입어규모 1450척 합의

해수부, 韓·中 어업협상 타결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9년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올해 대비 50척 감축한 1450척으로 합의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올해 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으며 3년 연속 입어규모를 감축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내 재개해 동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동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어선에 적용해 어민물고기 보호를 통해 수산자원 증대 등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韓-아세안 교통장관회의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왼쪽)이 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롬 푼뎃타야파 이셋 태국 교통부 장관을 만나 양자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인력공단, 오늘부터 혁신 아이디어 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HRDK 혁신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단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사회혁신과 공단혁

신 분야다.

사회혁신 분야는 국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주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공단혁신 분야에는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신뢰 회복 등 3가지 주제로 아이디어를 받는다.

작성 및 제출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1/6)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과기정통부 20일 소형위성 1호 발사

차세대 소형위성 1호가 오는 20일 오전 3시 32분경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이 밝혔다. 발사위치인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 현지시간으로는 19일 오전 10시 32분경이다.

차세대 소형위성 1호는 발사 후 2년간 575km 상공에서 우주과학 연구에 활용할 영상 자료를 국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태양 폭발에 따른 우주방사선 및 플라즈마 상태를 측정하고, 은하속 별들의 적외선 분광을 관측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1일 위성을 현지로 도착시키고 준비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카이스트 연구진을 중심으로한 발사관리단도 현지에 파견했다.

/김재홍 기자 juk@